

연중 제13주일(교황의 날)

제 1 독서 : 1 열왕 19, 16b. 19-21

제 2 독서 : 갈라 5, 1. 13-18

복 음 : 루가 9, 51-62

# 순정이

“쟁기를 잡고 뒤를  
자꾸 돌아다 보는 사람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루가 9, 62).

## 강론

### “쟁기를 잡고...”

오성기 신부 / 장계 천주교회

오늘 연중 제13주일에 우리는 스승과 제자의 성서적 의미를 배우게 됩니다. 신앙인, 곧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스승이 제시하는 가르침을 이해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여 자기 삶의 실천적인 변화를 이룩함을 뜻합니다. 오늘 복음은 ‘따름’에 관한 세 가지 가르침을 설명해주고 있는데 우리 모두에게 중대한 요청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첫째 조건은 하느님의 뜻과 관계가 없는 인간적인 확실성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불확실한 것, 그리고 잃어버릴 용기를 가질 때에만 가치를 지니게 되는, 즉 생명을 위협하는 것에도 자신을 열어 놓는 것입니다.

따름의 두번째 조건은 사물로부터는 물론이고 인간적 인연으로부터도 자신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장례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두고 가서 하느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적 관심보다 그리스도를 따름과 하느님 나라의 선포가 지닌 절대적 우위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따름의 세번째 조건은 다시 생각하거나 향수에 젖어 뒤를 돌아다 봄이 없이 항구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쟁기를 잡고 뒤를 자꾸 돌아다 보는 사람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라는 쟁기를 꼭 쥐고 신앙의 발을 쉬임없이 갈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고, 영생의 보장인 새생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가면서 죄에 물들지 말아야 함은 물론입니다. 계명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스승 예수님께서서는 더욱 강하게 요구하십니다. 그 요구는 조건없는, 완전한 전적 봉헌인 것입니다.

자!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느님 나라를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쟁기를 잡고...나를 따라 오너라.”

## 소리

### “죽음을 살림으로”

생명은 고귀하다. 하느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살아 있는 모든 것은 고귀하다. 그 생명이 악하건 못난 것이건 가릴 것이 없다. 일차적으로 아름답고 우선 참되다.

그런데 우리는 선과 악, 이쪽과 저쪽, 남과 북, 흑과 백으로, 심지어는 전라도와 경상도로까지 쪼개져서 모든 ‘저쪽’은 거부하도록 길들여져 살아왔다. 미묘한 정보조작정치의 결과로.

생명을 소중히 아는 마음을 모아 생명운동이 일고 있는 것은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마땅한 삶의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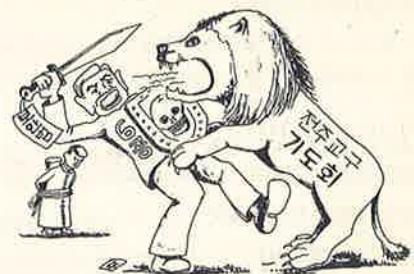
이런 큰 흐름이 도도히 흘러갈 때 그동안의 조작정치 담당자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제 스스로는 살아 있는 자이면서 줄곧 ‘죽임’과 ‘죽음’에 물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들은 마침내 그 업보를 치루고서야 생명의 바다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그들마저도 우리와 함께 생명의 바다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누려야만 하느님 나라는 완성되게 마련인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더 힘을 내야 하겠고 정의의 본질이 사랑에서 비롯되는 올곧음으로 어떤 협잡도 거부됨을 알아야 한다. 어두운 데서 일어난 일이 밝은 하늘 아래서 크게 드러난다는 진리가 모든 이의 마음에서 양심과 결할 때 까지 우리의 하나씩 다짐하는 생명 살리기가 찬찬히 계속 되기를 빌어본다.

물 아껴쓰기, 음식 조금 덜 먹기, 잔인한 마음 갖지 않기, 모든 석방운동에 서명하기, 철폐운동에 서명하기, 묶인 것 풀기, 얽힌 것 맺힌 것 화해하기, 더 미소 짓기, 더 양보하기...

그리스도처럼 되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희생하기, 이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 죽음을 삶으로, 죽음을 살림으로 바꾸기 위하여. ☐

### 순정이 산책



문규현 신부를 석방하라!

문규현 신부 석방 촉구를 위한 기도회

“성 명 서”

“나는 혈육을 같이하는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갈지라도 조금도 한이 없겠습니다”(로마 9,3).

이 민족의 고난에 사제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고뇌에 찬 결단으로 민족분단의 십자가를 지신 문규현 신부님이 영어의 몸이 되어 짐통 같은 감옥에 갇힌 지도 어느덧 3년이 되었다.

그러나 이 땅의 어두운 현실을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하고 그 해결책을 찾기에 남몰지 않은 고뇌와 행동을 보여주었으며, 민족분단의 아픔을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심정으로 살아온 문규현 신부님이 우리와 함께할 그 날은 아직도 요원한 것 같다.

지금 세계는 공산주의의 종주국이었던 소련의 붕괴와 동·서독의 통일 등의 격변을 겪으면서 냉전체제의 와해와 개혁을 통한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우리는 지난해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을 이루어냈고, 지난 2월 19일부터는 ‘남북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발효되었으며 오는 8월 15일에는 ‘이산가족 노부모 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당국은 이 땅의 통일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외면한 채 자신들의 정권 재창출을 통한 기득권 유지에 여념이 없을 뿐더러, 존립 근거 자체를 상실한 ‘국가보안법’을 악용하여 민족 통일을 위해 애쓴 방북인사들과 통일인사들에게 족쇄를 채우고 탄압과 감시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민주화와 통일에 대한 탄압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진정한 민족통일을 위해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그 실효성을 상실한 국가보안법에 의해 지금도 철창 속에서 자유를 구속당하고 계시는 문규현 신부



문규현 신부 석방 촉구를 위한 기도회 미사

님을 비롯한 모든 구속방북인사들의 석방을 촉구하며, 이의 관철을 위해 ‘문규현 신부를 비롯하여 통일과 관련된 방북인사의 석방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바이다. 또한 앞으로 이의 관철을 위해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의 주장

- 문규현 신부와 방북인사를 석방하라!
- 민족통일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 정부당국은 통일지향적 평화공존체계를 제도화하고 반통일 세력은 회개하라!

1992년 6월 22일

천주교 전주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천 주 교 전 주 교 구 사 제 단

베로니카 플라워 숍

방식꽃꽃이회 전북지회

동·서양란, 웨딩부케, 성전꽃꽃이

국 성 회(베로니카)

서 지 속(파비안나)

☎ 87-8427, 88-8426

젬마·조 **오픈**

여성 하이패션

인후동 성락프라자 1층 139호

최 바 울 라

☎ 76-1964

조주은 치과 의원

이전 확장 개원했습니다.

(6월 15일부터)

원장 조 주 은(헬레나)

중앙 성당 맞은편(허기석내과 건물)

☎ 87-8291

한 라 스포츠

등산, 낚시, 스포츠용품  
차갈 텐트 셋트 염가 판매  
(현금, 신용카드 분할 판매)  
송 헤 리(살로메)

관동로 전주 전신전화국 앞

☎ 84-2941

잡 관

문규현 신부  
석방 촉구를 위한

“기도회를 마치고 나서”

'92년 6월 22일(월) 밤8시 중앙 성당에는 여느 때 없는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문규현 신부 석방 촉구를 위한 기도회가 평신도 협의회와 교구 사제단 공동 협력하에 개최된 것이다.

주교님과 80여명의 사제단 그리고 2,000여명에 이르는 신자들이 성당 안팎을 가득히 메웠다. 모두가 문규현 신부의 석방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두 손을 모으면서,

정의평화위원회 회장인 박인호 신부께서 문규현 신부의 파복에서 구속되기까지의 경과를 자세히 보고했다. 문규현 신부의 결단은 바로 이 시대의 징표요 예언자의 자세였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어서 미사가 시작되었고 주교님의 강론 말씀이 신자들의 마음을 울려주었다.

“북은 더 이상의 반국가단체가 아니다. 밤에 빨래를 보고 도깨비라고 착각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정치와 영성은 그 어디 하나에 매일 수 없다. 신음하는 사람을 보고도 스스로의 착각에 빠져 지나가는 제관과 같은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된다. 사회의 악에 도전하고 빛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의 마음 안에 있는 분열을 극복하고 평화를 갖도록 기도해야 한다.”

우리 각자의 용서와 화해, 일치와 바로 민족의 일치, 평화통일을 가져다주는 지름길임에 제법 숙연해지는 모습이였다. 서로서로의 손을 잡고 주의 기도를 드릴 때 벅차오르는 형제에 때문에 눈시울이 뜨거웠다. 북의 형제들도 우리와 한핏줄·한겨레, 그 언제에야 그들의 손을 마주 잡을 수 있을까? 머나먼 이야기 같았지만 이제는 가까운 현실로 다가옴에 희망의 전율을 느끼게 된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의 소원은 민주, 우리의 소원은 평화”를 목청껏 노래하는 가슴가 습마다 희망의 꽃, 통일의 꽃이 활짝 피어오름을 느낄 수 있었다.

문규현 신부와 임수경 양 그리고 방북인사들에게 뜨거운 기도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다 함께 힘을 모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교 구 소 식

1. 교회의 날 2차 헌금 : 오늘 각 본당에서 실시됩니다.
  2. 교구장 본당 사목방문 : 6월30일(화) 오전10시-남원 성당, 오후2시-도동동 성당, 7월2일(목) 오전10시-임실 성당, 오후2시-순창 성당, 7월3일(금) 오전10시-장계 성당, 오후2시-장수 성당.
  3. 가톨릭 문우회 모임 : 7월4일(토) 오후4시 교구청 별관 1층 소강당.
  4. 가톨릭 언론인회 모임 : 7월5일 오전9시 가톨릭센터.
  5. 성모의 기사회 : 7월4일(토) 오전10시 효자동 성당.
  6. 젊은이를 위한 나눔 묵상회 : 7월4일 오후3시-5일 오후5시 천호 피정의 집.
- ※ 축! 명영 : 29일(성베드로·바오로) 서석기, 김병엽, 김영신, 박창신, 엄기봉, 문규현, 이순성, 김희남, 박인호, 정양현, 방의성, 김교동 신부님.  
3일(성토마) 서용복, 김정원, 이재후, 이종원, 김태환, 김영태 신부님.

- **성소모임** 성바로말수도회 : 7월5일 오후2시 성바로 서원 2층 (0652)252-3398.  
살레시오수녀회 : 7월5일 오후2시 연지동 성당 수녀원 (0681)33-2578.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폐식용유 처리

폐식용유는 하수구에 버리지 말고, 그릇에 묻은 기름은 종이로 닦아낸 후 씻습니다. 폐식용유는 모아두었다가 무공해 비누 만들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고급 적벽돌 생산업체  
(원원벽돌, 변색벽돌, 미다시)

제1공장 : 성심원과 (0658)546-4174  
제2공장 : 대진요업 (0658)546-7080  
본 사 : (0653)51-0488  
대표 차 계 철(베드로)

치질 전문 치료  
서울 의원

레이저로 치질 무통 수술,  
수술 후 무통으로 활동 가능  
전주시 덕진동 덕진광장 앞  
원장 이 상 재(베네딕도)  
☎ 75-0550

루벤호프  
(아르바이트생 모집)

조 민 구(프린치스코)  
유 해 미(마 리 아)  
효자동 한양 운남아파트상가  
☎ 224-1696

요십이 (986) 김병오



양재·한복·홍패션  
**노라노학원**  
수시모집, 원장직접 개인지도  
원장 김형문 (대전안드레아)  
동부시정완·민정당시영  
☎ 86-2715  
\* 냉난방 완비

**안관용내과의원**  
원 장  
의 학 박사 안 관 용(루가)  
내과전문의  
전주시 덕진구 중노송동 2가 505-22  
(전고 앞, 풍남국교 쪽)  
☎ 86-0815, 85-0325

사무용 가구  
(주) 삼 신 전복특약점  
금고, 목·철제책상, 의자, 쇼파,  
컴퓨터 책상  
중앙시장 뒤 노벨당 옆  
☎ 253-3361~2  
정 광 호(안셀모)

효소의 명품  
보사허 제 99호, 품목허 제 99-1  
**팔보종합아채효소**  
건강을 가꾸어드립니다  
전북지사 ☎ (0652)74-1161  
금암동 로타리 KBS 중간  
손석중(안셀모), 김제철(안젤라)

#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본당신부 82-9663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박 진 광  
수녀원 82-9662 사무실 82-9661 사목회장 김 동 주

※ **오늘은 연중 제13주일(교황주일) : 2차헌금 있음**  
1. "축" 견진성사 : 성령이 증반하시길 바랍니다. 2. 성시간 : 2일 저녁 미사 후 3. 별자봉성체 : 3일(금) 사무실에 신청바람. 4. 중·고하계캠프 : 대상-중, 고학생 기간 : 7.23~25일(2박3일) 장소 : 영광 모래미 캠프장. 신청 : 7월12일까지 교사회에 접수. 5. 성탄반 예비자모집 : 신자분들의 적극적인 인도바랍니다. 6. 반회장 갱신 : 배선화(테레사) → 동미숙(수산나) 7. 전사의 모후 부단장 갱신 : 한경희(가타리나) → 이홍자(그레첸시아) 8. 모임 : ①반회장모임 : 2일 전10시30 ②사목회상임위원회 : 3일 저녁미사 후 ③울뜨레아 : 5일 공식미사 후 9. 금주청소 : 인후2,3반 차주청소 : 인후4,5반  
□ 지난주 봉헌금 : 946,580원 □ 교무금 : 1,636,000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 병 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이 상 인

1. 영세식 : 7월5일 공식미사 중  
2. 예비자 집중교리 : 29-7월3일 오후7:30분)  
3. 교황주일 2차헌금 있습니다.  
4. 회합 : ①자모회(7월 2일 오전10시)  
②대전회(5일 공식미사 후)  
③사목회(5일 저녁미사 후)  
금주전례 : 유두석 독서-박종호씨 부부  
봉헌-정동민씨 가족  
차주전례 : 정승훈 독서-신대섭씨 부부  
봉헌-황길평씨 가족  
□ 지난주 봉헌금 : 578,420원 □ 교무금 : 875,700원

**\*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이 수 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한 동 목

※ **오늘은 연중13주일 및 교황주일 : 미사 중 2차헌금**  
1. 성모회 : 공식미사 후 2. 사목회 : 4일(토) 저녁미사 후 3. 꾸리아 : 다음주 공식미사 후 4. 교무금 납부의 날 : 매월 첫주(다음주) 5. 성서읽기 : 사무상 1장-15장 6. 감사 : 제대꽃 봉헌-김수산나 자매 7. 금주청소 : 신비로운 장미Pr 8. 금주전례 : 해설-유만순 독서①남원준 ②최영숙 봉헌-유순천, 유춘근씨 부부 차주전례 : 해설-김영신 독서①양주태 ②주영례 봉헌-이옥동, 문영호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 273,7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서 석 기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 명 용

※ **오늘은 교황주일 ! (교황의 날 2차헌금 있음)**  
1. 회의 : ①사목회-7월1일(수) 오후8시 ②자모회-7월1일(수) 오전10시30분 ③반장회-다음주일(7월5일) 공식미사 후 ④꾸리아-다음주일(7월5일) 오후2시  
2. 알림 : ①성당내 모든 물건을 내것처럼 아껴 사용합시다. ②오늘은 우리 본당신부님 영명축일 입니다-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많은 기도바랍니다. ③첫 영성체 대상자는 어울리마수 너님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 717,300원 □ 교무금 : 705,000원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조 정 오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 직 환

※ **교황의 날-특별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2차헌금 있습니다. 정성을 다합니다)  
1. 오늘 공식미사 후 : 요셉회, 사라회 있습니다.  
2. 젊은이 피정과 선택 프로그램 희망자는 신청바랍니다.  
3. 남성 꾸르실료, 여성 꾸르실료 교육 원하시는 분 신청바람.  
4. 예비자 모집-일요일반을 새로이 시작합니다. 많은 관심과 예비자인도에 적극 협조 바랍니다.  
5. 청소봉사 : 4구역 3반, 4반  
□ 지난주 봉헌금 : 600,900원 □ 교무금 : 1,084,000원

**\* 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김 봉 회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정 삼 권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이 영 태

※ **교황주일-오늘 2차헌금 있음.**  
1. 금주 : 성마리아 피미시움(후2시)  
2. 초등부 교리교사 하계연수 : 30일~7월2일 장소 : 나바위 교육관  
3. 성가정회 : 7월 1일(오전11시)  
4. 성체강복 및 조배 : 2일(목) 오전10시  
5. 별자영성체 : 3일(금)  
6. 감사합니다 : 성당카페트 200만원 기증(노영자, 바실라 자매님)  
7. 치주 : ①울뜨레아(공식미사 후)  
②재속클라라형제회(후1시30분)  
□ 지난주 봉헌금 : 1,823,750원 □ 교무금 : 2,013,000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 재 후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이 완 규

※ **축 1 영명 : 이재후(도마)신부 축하연은 없음을 양지 바람.**  
1. 성시간 성체강복 : 2일 후7시30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2. 사목회 상임 위원회 : 3일 후8시(삼성맨션 A동105호)  
3. 유아세례 : 4일 후3시 사무실에 신청서 미리 접수 바람.  
4. 초등부 교사 하계연수 : 30일~7월2일 나바위 교육관에서  
5. 성사대장 문서 점검 : 30일 전9시 사목회 감사 참여 바람.  
6. 전화번호 신고 : 반회장은 반회원의 전화번호 보고 바랍니다.  
7. 9구역 반 편성 : 101동-1반, 102동-2반, 103동-3반, 201동-4반, 202동-5반, 203동-6반, 206동-7반,  
8. 회의 : 울뜨레아-오늘 12시 꾸리아-다음주일 부녀회-1일 12시  
9. 가정미사 : 석구동 손말따 29일 후7시30분 4일 10시30분 이전  
□ 지난주 봉헌금 : 1,011,950원 □ 교무금 : 1,689,000원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 서 석 구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 한 병 갈

1. 청년회 : 오늘 미사 후  
2. 교황의 날 2차헌금이 있습니다.  
3. 초등부교사 하계연수 : 6월30일~7월2일 나바위 교육관  
4. 중고교사 하계연수 : 6월26일~28일 나바위 교육관  
5. 첫 영성체자 29명의 어린이를 축하합니다.  
6. 금주전례 : 최경순 독서·봉헌 : 형광임·윤장호  
차주전례 : 장병순 독서·봉헌 : 김정자·양노섭

**\* 효자동**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김 치 삼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서 석 회  
사목회장이 동 설

※ **연중 제13주일 교황의 날 ! -(2차헌금)**  
※ **오늘은 교황을 위하여 특별한 기도와 회생을 바치는 날입니다.**  
-모임-  
1. 사회복지분과위원회 : 마지막주일(9시30분)  
2. 사목회 : 첫째주 금요일(3일) 후8시  
-행사-  
3. 유아세례 : 마지막주일(후)4시  
4. 환자봉성체 : 매월 첫째 화요일(전)10시  
-미사-  
금주 : 순교자의 모후, 성마리아  
치주 : 가난한이들의 어머니, 파티마의 모후  
□ 지난주 봉헌금 : 1,342,170원 □ 교무금 : 1,562,000원

**\* 효자우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김 순 태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엄 의 도

1. 심전건축위원장-이교성(요셉) 수고해주심시오.  
2. 모임안내 : ①사목회-저녁미사 후  
②반회회, 요셉회, 요셉회-공식미사 후  
3. 반회장 및 제단체장 피정 : 7월4일(토)~5(일) 장소 : 나바위 성당  
4. 환자봉성체-7월2(목) 오후2시 신청바랍니다.  
5. 여성분과회-3일(금) 10시 미사 후  
차주모임 : 꾸리아 신축헌금 봉헌액 : 250,000원  
금주전례 : 해설-김이용 독서-①김수일 ②정영숙  
미사봉헌안내-김삼철 부부, 김용신 부부  
차주전례 : 해설-박영래 독서①유영성 ②한정숙  
미사봉헌안내-황인용 부부, 최규화 부부  
□ 지난주 봉헌금 : 1,330,100원 □ 교무금 : 3,085,000원